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익산시, '2023익산방문의 해' 맞아 청결·안전·경관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익산시는 '2023 익산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청결·안전·경관을 강화하며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봄철 국내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 주변 환경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머물고 싶은 관광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주요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및 관광지의 환경정비와 봄꽃 경관조성에 나섰다.

우선 익산, 아름다운 순례길' 역시 안내판을 재정비하며 순례객 맞이 준비를 하는 등 관광안내도가 변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리 안내정보를 재정비한다.

또한 '사진 속 프레임에 비추는 자연 경관'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환경정비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 촬영 시 인물과 핵심 관광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인근 숲과 잔디 등까지 범위를 넓혀 청결한 환경 조성에 신경쓰고 있다.

익산 시계절 관광지이며 고즈넉한 산책길로 알려진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숲이네기 작업을 통하여 어디에서 사진을 찍든 짙은 짙은 멋진 대나무숲과 함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미륵사에서 차로 5분거리가 있어, 미륵사지를 들리는 관광객이라면 시간을 내어 가볼 만한 사진찍기 좋은 장소이다.

특히 캠핑족들에게 인기있는 옹포관광지는 시원하게 뻗은 금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조성시설과 자연녹지지역을 환경 정비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 중이다. 옹포관광지는 옹포공개나루명소화사업이 오는 8월 완료되면 야간관광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불거리 확대를 위해 봄꽃 경관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합리현옥 체험단지 뒤편 등산에 약 600㎡ 규모의 수레국화, 수선화 꽃동산을 마련했다. 옹포캠핑장 주변 금강정 진입로 양쪽에는 꽃길을 조성해 화사한 봄기운을 전하는 관광 요소를 다변화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도시재생사업·도시가스공사 병행추진

군산시가 하수관로와 도시가스 공사를 병행 추진하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2일 성산면 일원과 구암·조촌분구(구암동 조촌동 개정면 이동리)의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도시가스공사와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산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19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48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1,000톤 규모 1기 설치, 하수관로 40.7km 신설, 배수설비 8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구암·조촌분구는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하수관로 27km 신설, 배수설비 1,34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하수관로와 기타관로(수도·가스 등) 매설 시기가 상이해 이중굴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도로포장 파손·침하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

고 도로포장 유지관리에도 각 기관의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

올해 추진하는 성산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로 공사는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포장복구 등에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도시가스 보급 수혜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암·조촌분구 또한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비슷한 여건으로 구암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의 도시가스 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중굴착 방지와 같은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원점' 청이 아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케이블카 사업 등 새만금 개발 소극행정 질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2일 경제협력신규장 및 새만금에너지지구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방안을 비판하고 새만금을 확보시키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무관심 등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 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지체사업으로, 최근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의 유명무실함을 한탄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를 목표로 하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너도를 49km 구간으로 잇는 새만금 관광의 핵심으로 2024년 개장이 계획되었다.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새만금청의 전면 재검



토한다는 입장 돌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으로 2020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한수원이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차질과일 미루고 있는데다 업무 협약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철회까지 이어질 새만금청의 무능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였는데, 새만금청은 개발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되었다며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라북도에게 각종 권한 및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에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런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 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 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 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는 2월 임시회 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상기하며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아무리 방관해도 우리 군산 시민민은 팔뚝 뚫어야 한다"며 "군산 시민과 함께 우리의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대학 신입생 대상 주소전입 혜택 홍보

익산시가 지역 대학교 입학식을 맞이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주소전입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등 대학생들을 위한 전입 혜택을 강화하고 홍보에 나섰다.

우선 지난달 28일 원광보건대학교 입학식과 2일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신입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입 혜택 및 각종 청년정책을 홍보했다.

각종 혜택 중 익산으로 유학 온 타 지역 학생들이 익산으로 주소를 옮기면 첫 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로 10만원씩을 지급하여 졸업 시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이 신입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시는 학생들이 전입신고와 전입 지원금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



해 전입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한자리에서 신청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 소풍민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전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학생회의 협조를 받아 학생 커뮤니티를 활용한 SNS, 단톡방 공유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전파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익산시의 청년 정책 등 각종 지원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졸업 후에도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드림카페' 사업 추진

군산시민에게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다닐 수 있는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시보건소는 올해부터 군산시민이 원하는 카페로 찾아가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드림카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음드림카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로 △우울증,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군산시민 누구나, △관내 위치한 내가 원하는 카페에서 △정신건강 자가진단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검사 및 심리상담 △3회 이상 지속 상담 시스템 관리 키트 제공 △정신지원 집단프로그램 진행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치료비 지원 연계 등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가르치는 재능 '청년 쌤스쿨' 강사 모집

익산시가 재능은 있지만 강의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 강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쌤스쿨'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쌤스쿨'은 청년이 가진 다양한 지식 재능을 스스로 기획하여 청년들에게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로 강의 진행이 가능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강의는 청년들에게 필요하거나 청년이 관심 있는 취·창업, 공예, 베이킹, 재테크, 외국어, 요리, 운동 등 모든 분야로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 쌤스쿨'은 지난해 라탄 공예, 에세이 입문, 홈 트레이닝, 라이브 커머스 액셀 실무 등 12개 강의를 운영하며 총 119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이번 강사 모집은 상시로 진행되며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청년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